



# 유한한 자원 무한한 인간욕망 '조절기능' 필요

다가사모리 교수 '물심일여' 등 실천중심 불교경제론 주장

경제학은 인간 욕망의 추구를 탐구하는 학문이지만, 공(淸)사상의 불교적 입장에서 경제를 생각한다면 경제 즉, 욕망을 억제하는 또 다른 경제학이 성립한다. 유한한 자원과 무한한 인간의 욕망 사이에 조절이 요구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불교적 입장에선 또 다른 경제학도 성립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논의는 일본의 학계에서 전개되었다. 전회에 이어 이번에는 실천론으로서의 불교경제론에 관한 논점을 추가 설명해 보고자 한다.

실천론으로서의 불교경제론은 다가사모리 덴시게루(前 고마자와대학 교수)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불교와 경제를 결부시키거나 일체화를 생각하는 경우, 불교경제의 특징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불교적 경제생활을 하기 위한 바람직한 모습 즉, '불교경제의 길(道)'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불교교리의 현실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수행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물심일여(物心一如)의 경제이고, 둘째, 자리타리(自利他利)의 경제 셋째, 변천체관(變遷體觀)의 경제 넷째, 정진보은(精進報恩)의 경제 먼저 '물심일여(物心一如)의 경제'란 불교어의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身心不二)'라거나 '몸과 마음이 하나(身心一如)'로 통한다는 것으로서 물질(物)과 마음(心)이 하나가 되어 재화의 생산과 소비를 행한다는 뜻이다.

쌀농사를 예로 들어보면, 자기 외의 다른 사람의

먹거리로 신체를 보양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해 단순히 물질(상품)로서의 쌀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깃든 쌀농사를 짓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오직 자기 돈벌이만을 위해 쌀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산업으로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고 차세대를 위해서도 진심을 기울여 농사를 짓는 것이다. 한편 소비측면의 경우, 가능한 한 싸게 사서 적절하게 잘 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쌀농사에는 많은 사람의 노력과 마음이 합쳐져 있고, 거슬러 올라가면 대자연의 힘 즉, 햇빛 공기 물 등 비경제재의 작용이 가해져 있어서, 이를테면 하늘과 땅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쌀은 정신이 깃든 물심일여(物心一如)의 재화가 된다.

두 번째의 '자리타리(自利他利)의 경제'란 무엇인가? "물려주는(양도) 데에 손해 없고 빼앗는(착취) 데에 얻는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다. 육조(목욕탕)속에 들어가 목욕물을 저쪽으로 밀면 자기 앞으로 되돌아오고 내 앞으로 끌어 모으려고 하면 저쪽으로 흘러져 가버리는 것을 예로 들면서 '물려주는 것'을 탐(貪)하지 않고 '남을 이롭게 함'으로써 저절로 자기도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라는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결국 저절로 자기의 이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고방식이다.

이것은 서양류의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식의 꼭 대가를 주고 받기를 기대하는 교환의 미덕이



그림 · 김필현

아니라 불교적이고 동양적인 인정 내지 자비심으로부터 나온 베품의 행위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자리타리(自利他利)의 정신이야말로 경제의 중요한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인 '변천체관(變遷體觀)의 경제'란 제행무

상(諸行無常)의 정신이 경제면에 활용되어야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경기순환의 과정이나 경제의 구조 변화라든지, 경기침체나 공황, 인플레이션이나 실업 등 여러 가지 경제변동은 불교에서 말하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의 구체적인 실현과정이다. 따라서 경제정책 대응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경제 변동 내지 순환 과정 그 자체를 근절한다든지 인위적으로는 완벽하게 방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한 경제변동은 제행무상, 변천유동(變遷流動)의 자연 본래 본연의 모습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요컨대 객관적이고 체념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면 경제변동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그 파장을 부드럽게 받아들여 적응할 수가 있다. 무슨 일이든지 평상심의 각오가 되어 있으면 비탄할 것도, 두려워 당황할 것도 없이 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체관(體觀)에 달하고 있지 않으면 '우는 얼굴에 벌(蟻)'이란 설상가상의 상황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작년 가을 미국발 글로벌 자본주의의 붕괴로 허둥대는 G7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의 모습은 바로 그 본보기와 같은 구체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불교용어로서의 체관(體觀)은 통속적인 의미에서의 포기 즉 체념이 아니라 본질을 간파하고 정관한다는 뜻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변천체관(變遷體觀)의 경제관이란, 소극적이면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면서 또한 주체적인 사고와 태도로 경제변동에 유연히 대처해 나갈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네 번째의 '정진보은(精進報恩)의 경제'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인가?

불교가 목표로 하는 것은 열반(涅槃)이다. 즉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 고(苦)가 없어진 경지는 궁극적 깨달음의 경지이며, 이것이 곧 안심입명(安心立命)이다. 다시 말하면 열반, 즉 안심입명이 불교의 목표라면, 경제상황이 목표로 하는 바의 이상도 이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그 이상에 도달해야 할 자기의 직장에서 정진해야 한다. 사실은 그러한 정진이 가능하게 되는 것도 하늘과 땅,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사회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체 만물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감득한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도록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해 정진을 거듭해간다. 은혜라는 개념에 대한 감각은 많은 현대문명인에게는 무연(無緣)으로 되어 있으나, 자기가 살고 있는 모든 사치 구성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곧 불심(佛心)을 행하는 일인 것이다.

정진보은(精進報恩)의 경제란, 바꿔 말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이상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바로 그것이다. 다가사모리씨는 이상의 논점을 토대로 불교경제의 특징을 알기 쉽게 간단히 다음과 같이 압축표현하고 있다.

"맑은 마음을 바탕으로 해(佛心), 하루하루를 아쉬워하며(無常), 상부상조하는 정신으로 서로 도우며(無我·緣起), 열심히 일하고(생산·교역), 잘 나누어서(分配), 물건을 잘 사(소비), 감각의 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불교경제의 도(道)라 한다." 바로 이것이 실천으로서의 불교경제론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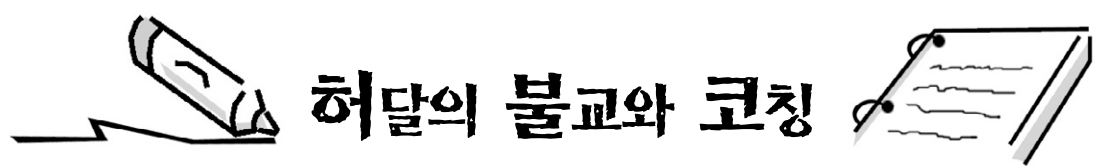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 13 연결의 극의

'사랑'이란 '평화'든 모두에게 잘 알려진 보편적인 단어 하나를 고른다. 그리고는 다섯 명으로 이루어진 팀 구성원들에게 그 단어로부터 연상되는 다른 단어를 각기 열 개씩 쓰게 한다.

다섯 명이 다 함께 공유하는 정확한 단어는 몇 개나 될까? 게임의 임을 하기 전에 추측하도록 해 보면 적어도 열 개 중 3~4개는 공유하는 단어가 생겨날 것으로 모두를 기대한다. 그러나 실제 게임을 치러 보면 전만의 말씀이다. 아주 드물게 하나쯤의 단어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섯 명이 모두 공유하는 단어는 열 개 중 하나도 없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다. 우리는 같은 단어를 놓고 각기 다른 연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신(神)>이라는 제목의 연작 소설을 발표해 요즘말로 '뜨고' 있는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실제로 뛰어난 개미 연구가이기도 하다. 그의 소설 <개미>에 따르면 개미는 완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생물이라는 것이다.

앞의 연재 글에서 시너지 즉 집단 창의력을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요소 중 하나로서 불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을 들었는데, 베르베르의 이야기를 읽는다면 개미는 연결에 의한 시너지를 이루는데 인류보다 우수한 지구상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다. 비슷한 맥락에서 필자가 강의 시에 사용하던 우화(寓話) 한 토



막을 아래에 소개한다. 지금으로부터 몇 세기가 지난 뒤에 지구 밖에 사는 인류보다 더 발달한 문명을 가진 존재(ET?)가 마침내 지구를 공식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게 간단치 않더라는 것이다. 지구의 대표로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에 논란이 생겼다는 것이다. 인간들은 '그야 당연히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대표지' 하고 거들먹거렸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구를 방문한 이 문명된 존재들은 개미를 지구의 대표로 삼아 회견을 하고는 인류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떠나려는 참이었다.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받은 인류가 이들을 만나 항의했다고 한다. "어째서 당신들은 지구상의 가장 문명된 존재인 인류를 저쳐 놓고 개미를 대표로 만났느냐?"고, 이를 우주적 존재의 대답을 들어 보자.

## 사람이 개미보다 잘난 게 뭐지?

"내가 일러 주리라. 첫째, 연고권면에서 개미가 수승(殊勝)하 아니라, 개미는 이 지구상에 몇 억년 이상을 거주해 왔거나 너희는 겨우 300만 년이 고작 아니더냐?"

둘째, 문명의 발전 단계를 참고하면, 너희 인간은 이제 겨우 유전자 조사의 문턱에 들어와 있으면서 다음 밀레니엄에는 어쩌면 유전자 조작을 받아들인 인류와 이를 거부한 인류가 공존할 가능성이 있 다는니 어쩌느니 하는

는 초보적 단계 아니더냐? 개미를 보아라. 그들은 유전자 조작의 역사가 이미 1억 년에 이르러 그 행위가 이미 자연이 되었거나

니와 일개미, 병정개미, 수개미, 여왕개미, 심지어 유모개미, 영양저장개미까지 필요한 개미의 종류와 수를 필요한 시기에 만들어 내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고작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어 이제 해놓은 일이 무엇이나? 자연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문명이

한 십만 년은 갈 것 같더냐?

셋째, 너희들은 언어와 문자 있음을 자랑해 "우리가 의사소통의 능력이 있으니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다" 하지만, 너희들 중 누군가가 조사한 바를 내가 인용하리다. 너희가 말로 하는 의사소통이 7%를 넘지 못하며, 아직 손짓 발짓으로 하는 의사소통이 55%를 넘는다는 통계를 내가 보았거니와, 개미를 보라. 개미는 일상에는 페로몬이라 일컫는 화학 물질을 사용해 의사소통 하지만 너희와는 달리, 필요한 때에는 머슴이를 마주 대어 붙이고 한 개미가 자신의 기어 속에 저장한 모든 정보를 다른 개미에게 100% 넘겨 주는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 사용 하느냐, 너희와 개미 중 누가 더 발전된 의사소통을 한다 하겠느냐?"

코칭 핸드북에 보면 '사람들은 연결을 통해 성장한다'는 원칙이 나온다. 코치는 맥락적 경청을 통해 고객이 사용하는 언어를 주의 깊게 살피고, 그 고객의 언어를 도구로 사용해 그와 에너지 흐름으로 연결된다. 이로써 고객이 자기 자신과 연결해 자신감을 확보하는 것을 돕고, 그가 또한 다른 사람과 연결해 시너지에 의한 성장 잠재력을 만들어 내도록 도우며, 주위 상황과 연결돼 주변 사물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고 진정한 자기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과의 연기의 그들 세계, 이것이 부처님께서 증생의 근기를 도구 삼아 가리켜 보이신 연결의 극의(極處)가 아닐까, 짐짓 생각해 본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 64형으로 나누어서 본 나의 체질을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나의 체질을 알아야 나에게 맞는 음식, 맞는 과일, 맞는 차를 알고 먹어야 병을 만들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제마의 사상의학공부를 40년 넘게 하면서 손등의 피부를 만져 보면 정확한 체질을 알려 드리오니 시간을 꼭 내셔서 만나보세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병은 무엇이며 현재 병증은 왜 있는지를 체질을 알면 다 알수있기에 궁금하신 분, 사는 동안은 아프지 않고 살고 싶은 분은 찾아오세요

현재 병증이 나오면 한약치료 처방을 해주는데 드셔보면 5일안에 변화를 본인이 느낍니다. 아토피 피부병은 바로완치됩니다

스님들께는 건강한 몸으로 수행하시라고 모든 특혜를 드립니다

상담연락처 011-9373-3778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 여성이 살때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때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압박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퐁퐁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 "승기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께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현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어 속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충북 청원군 북일면 초정약수 투골암 전화번호 : 043)214-1280 대진 스님